

독신가족의 가족복지 욕구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to Analyze Welfare Needs of a Single Family

중앙대 가족복지학과
강 사 박정윤 · 김진희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Lecture : Jeong yun Park · Jin hee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number of single family is increasing because of individualism, resistance toward patriarchal family system, forced independence of women, absence of proper spouse and divorce rate, and aging. This study is to find out welfare needs in order to make family welfare measures toward continuously increasing single family.

Data analysis has been tri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study by in-depth interview, and structural questions were ask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communication. Difficulties that single testers go through are social prejudice, financial problem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 reduction of social network, and health. Lack of publicity, limit of welfare beneficiary, lack of service are suggested as problems, and what needs to be changed are formation of self-reliance meeting, financial independence, preparation of health and one's declining years.

주제어(Key Words): 독신가족(single family), 복지욕구(welfare needs), 사례연구(case study)

I. 서론

최근에 우리 사회는 독신가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수에서 1인 가구의 변

화 비율을 보면 1980년대 4.8%, 1990년대 9.0%, 2000년 15.5%를 차지하여 80년대에 비해 3배 이상의 증가(통계청, 2001)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핵가

족화와 함께 독신 가족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독신가족의 증가는 개인주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대한 반발, 여성의 경제적 자립, 적절한 배우자감의 부재와 이혼율, 고령화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이기숙 외, 2001).

독신가족은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법적 배우자가 없는 가족을 말한다. 독신 가족은 결혼의 배우자 없는 모든 상황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미혼독신 가족으로만 독신 가족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통념이나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정현숙·유계숙, 1998).

독신가족은 그들의 삶이 배우자가 있는 결혼생활과는 다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즉, 개인적인 특성, 결혼 경험 유무, 독신의 과정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독신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 스스로 문제 해결해야 하고, 사회나 제도적인 장치로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사람들은 결혼과 가족생활 양식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 독신가족의 삶도 개인이 선호하는 하나의 가족 생활양식이라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신가족이 독신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지원을 밝힘으로써 독신가족을 위한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독신가족이 현재 독신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각 정도, 개선점의 요구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독신 가족의 욕구와 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밝힘으로써 앞으로 독신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실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독신가족에 대한 이해

독신가족은 현재 배우자가 없는 가족으로서, 결혼 유무에 따라서 미혼 독신가족, 이혼 독신가족, 사별 독신가족이 분류할 수 있고, 독신기간과 자발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발적·일시적 독신(voluntary temporary singles), 자발적·안정적 독신(voluntary stable singles), 비자발적·일시적 독신(involyuntary temporary singles), 비자발적·안정적 독신(involyuntary stable single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경석 외, 2001).

자발적·일시적 독신가족은 결혼은 하겠지만 당분간 취업준비, 직업생활, 자신만의 생활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유형(유영주 외, 2000)이다. 성인이 초반에 자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결혼은 나중에 하겠다는 새로운 경향으로 자신의 학업의 연장, 직업적 안정성, 경제적·정서적인 독립 등으로 독신가족을 선택하고 있다.

자발적·안정적 독신가족은 독신생활을 선호하여 독신가족을 선택한 유형으로 결혼한 적이 있으나 재혼을 원치 않는 사람, 동거하고 있으나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성직자들이 이에 속하며 편부, 편모도 이에 포함된다(유영주 외, 2000).

비자발적·일시적 독신가족은 결혼을 원하지만 아직 배우자를 정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찾는 유형으로 미혼, 이혼, 별거, 사별상태에 있으면서 이에 해당할 수 있다(유영주 외, 2000).

비자발적·안정적 독신가족은 비자발적·일시적 독신보다는 나이가 많아 배우자를 찾기 힘들어지면서 독신가족의 삶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유영주 외, 2000).

독신가족을 선택하는 이들이 위의 한가지 유형으로 정확하게 속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독신가족의 삶을 어릴 때부터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원하고 결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상황이 결혼보다는 독신가족으

로 변화하게 되면서 독신가족을 이루게 된다.

독신가족의 생활은 연령, 성별,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서 똑같은 삶이 살고 있지 않으며 매우 다양하다. 독신생활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젊은 세대의 경우는 독신이 주는 자유, 자아발전, 자유로운 성생활 등의 즐거움을 누리는 반면에 나이 든 독신가족의 생활은 기혼 친구들과 생활양식이 달라서 공통된 화제가 줄어들고, 이성친구나 애인이 늘 함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독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Knox & Schacht, 1999).

성별로 볼 때, 남성 독신이 여성 독신에 비해 결혼에 대한 압력이나 스트레스가 적은 반면에 여성의 경우 결혼을 생각할 경우 배우자 선택의 제한점, 나이로 인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더 큰 부담을 갖는다(Saxton, 1996).

또, 경제적 능력 역시 독신생활을 상이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경제적 능력을 있다면 여유 있고, 자신을 위한 투자와 즐길 수 있는 독신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모와 가족, 주변에 의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이 독신가족의 삶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형성되고, 독신가족 내 개인의 삶도 획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독신가족의 유형별 다른 특성을 볼 때 그들이 갖는 문제점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독신가족 복지에 대한 선행연구

독신가족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 수용하는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들 가족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독신가족에 대한 연구를 보면 기혼자와의 생활 비교를 통해서 독신생활과 결혼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김정옥 외, 1998; 주성수·윤숙례, 1995; Cooms, 1991; Benokraitis, 1993)가 있고, 이혼·사별 독신가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정주수, 2000; 조미희, 1999; 이애재, 1999; 김오남, 1998).

독신가족은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독신가족은 또래의 결혼생활을 하는 기혼자에 비해서 평균소득이 낮아서 독신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경제적인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노인 독신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 독신가족이 부부가족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정경희, 1998), 사별 독신가족 생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길량·김정옥, 2000; 강인, 198; 최희정, 1997; 정은, 1994).

또, 독신가족은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정옥 외(1998)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죽음으로 독신이 된 사람들은 높은 사망률과 자살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고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건강문제는 성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독신 남성은 기혼 남성에 비해 수명이 짧고, 알코올 중독, 자살, 정신분열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독신 여성은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Cooms, 1991; Benokraitis, 1993) 남성의 독신생활이 건강에 더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신가족은 신체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심리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독신가족 생활에서 호소하는 정서적인 어려움은 외로움, 고독, 공포감 등이었다. 또,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정서적인 문제도 호소하였다(김성천·윤혜미, 2001). 특히 이혼 독신가족은 배우자의 상실에 대한 절망감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으로 인해서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보였다(김영희, 1996; 공세권·조애저·허미영, 1995).

독신가족의 정서적인 외로움, 고독감은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독신가족은 가족이나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혼자라는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문현숙·김득성(2000)의 연구에서 이혼 후 자녀와의 상호관계가 적은 경우 상실감과 죄의식을 갖고, 심리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

는 반면에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지원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경우 정서적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독신가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문제, 정서·심리적 문제, 경제적 문제들이 공통적이다. 독신가족에 대한 연구는 이혼 및 사별 독신가족에 치중되어 있고, 그들 가족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독신 유형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문제의 지각정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가족복지는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보다는 가족과 친족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최경석 외, 2001),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독신가족 역시 독신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뿐 가족단위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독신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신가족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독신가족이 처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복지 수혜 당사자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면접 과정 및 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목적에 달성하도록 시도하였으며, 정보제공자의 특성 및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구조화된 질문을 병행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질문 내용은 독신가족이 되는 과정, 독신 생활에 대한 어려움, 독신가족으로서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 독신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이었다. 면접은 2000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정보제공자의 특성과 1차 면접 결과에 따라 사례별로 추가 면접이 2~3회 이루어졌다. 1회 면접시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으나

정보제공자가 지루해하거나 성실한 대화 혹은 응답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시간을 끌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2. 자료분석

면접에 앞서 면접원은 면접에서의 녹음기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면접원이 수집한 자료는 먼저 각 사례별로 면접시에 녹음된 내용을 전부 필사한 후 한 줄 한 줄 내용을 검토해 가면서 독신가족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 및 현행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복지 서비스의 개선점에 대해서 정보제공자가 말한 그대로 진술을 문장이나 단락의 기술적인 형태로 다시 옮겨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정리된 내용을 독신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정보제공자 선정 및 특성

정보제공자의 선정은 엄격한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심층면접이 가능한 조건 아래 연구대상이 이를 쾌히 받아들이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1명을 선정하였다. 정보제공자는 미혼독신 5사례(1, 3, 8, 9, 11 번 사례) 이혼독신 4사례(4, 6, 7, 10번 사례)와 사별독신 2사례로(2, 5번 사례) 각 사례로 구성하였으며, 면접원의 생활세계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으로 친분이 있거나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이다. 정보제공자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제보자는 연령적으로 30대 중반에서 8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성별로 볼 때 남자 제보자가 2명이며 여자가 9명으로 여성 제보자가 더 많았으며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 제보자가 4사례였고, 전문대졸 1사례, 고졸이 4사례, 무학 및 중졸이하가 2사례였다.

〈표 1〉 정보제공자의 특성

사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 유무	종교 유무	독신 형태	수입 (만원)	주거 형태	비 고
1	女	37	고졸	자영업	×	무	미혼 독신	100-130	기숙사	· 약혼자 결혼 일주일 전 사망 · 부모 부양 부담
2	女	52	고졸	무직	○	기독교	사별 독신	30-40	자가	· 생활보호대상자 · 신경과 치료 경험
3	女	40	고졸	간병인	×	무	미혼 독신	150	자가	· 형제자매와 정기적 왕래 · 친구관계 소원 · 취미활동 거의 안함 · 부채가 있음
4	男	84	중졸	취로 사업	○	무	이혼 독신	15-20	전세	· 북한에 아내와 자녀 있음 · 시력 나쁨 · 친척·이웃 관계 소원 · 생활보호대상자
5	女	75	무학	무직	○	무	사별 독신	15-20	월세	· 친구, 이웃 관계 소원 · 생활보호대상자 · 남편과는 재혼으로 사별 후 자녀와의 왕래 두절
6	女	60	전문 대졸	무직	○	기독교	이혼 독신	15	월세	· 질병: 골다공증, 관절염 수술 경험 있음 · 생활보호대상자 · 자녀 연락 두절 · 친척 관계 소원
7	男	51	고졸	공공 근로	○	무	이혼 독신	60	자가	· 질병: 심근경색, 뇌수술 경험 · 친척, 자녀 연락 두절
8	女	48	대졸	상담원	×	천주교	미혼 독신	160	전세	· 자발적 독신 · 형제자매와 정기적 왕래
9	女	50	대졸	회사원	×	기독교	미혼 독신	150	전세	· 부모부양부담 · 질병: 비염
10	女	39	대졸	자영업	○	천주교	이혼 독신	150-200	전세	· 폭력남편으로 인한 이혼 · 자녀 없음 · 재혼을 원함
11	女	33	대졸	기자	×	천주교	미혼 독신	200	전세	· 결혼에 대한 바램 있음 · 자발적 일시적 독신

취업유무는 8사례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3사례가 무직 상태였고, 직업이 없는 제보자 3명은 질병과 노환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활보호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일정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보조받고 있었다.

주거상태는 자가가 3사례, 전세가 5사례, 월세가 2사례, 기숙사 1사례였다. 제보자들이 전세 혹은 월세

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볼 때 독신 제보자들은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와, 임대주택 해당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으며, 주거비용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종교유무는 종교가 있는 제보자가 6사례, 무교인 경우가 5사례였다. 종교가 있는 제보자들은 독신생

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정서·심리적인 문제를 종교적 믿음이나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극복하고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서 종교가 없는 제보자들은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노환으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2. 독신가족의 문제점

독신 가족이 독신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사회적 편견, 사회적 관계망 축소, 심리·정서적 문제의 5가지를 제기하였는데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불만정도는 결혼상태나 독신가족이 되는 과정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5가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어려움

독신가족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인데 본 연구의 제보자들도 경제적인 문제점을 호소하였다. 독신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직의 어려움, 현재의 직장생활 지속에 대한 문제였다. 구직에 대한 어려움은 미혼 독신자 사례에서 나타났는데 안정적인 직업이 없음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한 어려움이 더함을 호소하였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혼자서 헤쳐나간다는 것이 힘들죠. 자기가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주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전문직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어떤 내가 사업이나 자영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그게 충분히 일정 수입을 유지하고 꾸준하게 그것이 잘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영업 같은 경우 생계비가 유지가 안되고 경제력이 안될 때 그걸 버리고 다른 걸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안정된 직장을 갖는데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중략)” (사례 1)

“직업을 구하는데 나이가 걸리니까 그게 어려웠구요. 우리나라는 여자나이가 스물 여섯, 일곱이 넘어 가면 설자리가 없어요(사례 10).”

사례 2의 경우 사별 독신으로 전업주부의 생활에서 혼자 됨으로써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스스로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 뭐 장사를 뛰어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이 들더라고...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해야 좋을지 막막한 거야 집에서 그냥 완전히 전업주부로만 있다가 일을 당하니까.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나이가 젊어 진짜 가봤더니 파출부밖에 할 일이 없어 식당 일이나. 요즘은 전문직을 요하고 젊은 사람들을 쓰잖아.”(사례 2)

경제적인 문제의 다른 측면으로 수입원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돈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사례 3)

“아무래도 혼자고 하니까 돈 쓰는데 있어서는 돈만 있으면 헤프게 막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인제는 노후의 경제적인 부분의 걱정이 생기더라고요.”(사례 3)

또, 경제적 문제의 한 측면으로 주거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독신자들은 임대입주 조건이 부적합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 마련도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어 주택마련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요. 가족만 되기 때문에...”(사례 6)

“월세부터 시작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힘든 케이스였어요. ... 신용으로 대출을 한다고 해도 신용이라는 것은 자신이 소득이 있을 때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임시로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어요.”(사례 10)

또, 노인 독신가족의 경우 각종 만성 질병이 많고 있고, 이를 치료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관절염이 있는데 약값이나, 병원비에 대한 보조가 부족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렇다 큰 병이라도 생길까 늘 걱정이지요.”(사례 5)

경제적인 문제는 안정적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어려움에서부터 생계비의 부족, 주거마련 비용, 주거유지비용에 이르기까지 독신 생활

을 힘들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독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구직을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와 개선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건강 문제

독신가족의 건강문제는 미혼이나 이혼 독신가족의 경우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가 적은 반면에 사별 독신가족 제보자들은 건강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사별 독신가족 제보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 노인이 되면서 자신을 돌봐줄 누군가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노인 독신가족은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늙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불안해하였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 우선 내 몸이 아픈 거 그게 참 힘들더라구. 내가 수족을 못쓸 때는 어떻게 돼? 내가 돈이 많으면은 사람을 쓰기라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잖아 그게 문제라구.” (사례 2)

“건강만 하면 내가 걱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일에는 무서운 게 없었는데...”(사례 7)

독신 가족의 건강 문제는 사별 독신가족이 이혼이나 미혼 독신가족보다는 건강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독신 노인들은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건강임으로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반해 미혼이나 이혼 독신가족은 자신들의 건강문제는 현재 직면한 문제이기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사회적 편견

독신가족이 독신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어려움은 미혼과 이혼, 사별에 따라서 부분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인 불만요소로 제기된 것은 결혼에 비해서 독신생활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선입견이었다. 사례 1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나 주변 친척들이 갖는 독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과 어울릴 수 없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진다고 하였다.

“가족과 친인척간의 모임이라든지 나서기가 힘든 건 아무래도 어른들하고 만나고 그러면 자꾸 결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 게 좀 부담스럽고... 도시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명절 때 집에 안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혼자 살면 다른 사람들이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웬 만큼 자기 생활을 똑 부러지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게 독신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죠.(사례 1)”

미혼 독신가족 제보자의 경우 이러한 편견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성생활의 문란에 대한 편견으로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독신 생활이 어려워짐(사례 3)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독신가족 생활자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주변으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자 사는 독신녀다 그러면 말이 독신녀지 저게 처널까? 저게 혼자 살았을까 그렇고 그랬겠지, 그런다구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되면 막 속상하지만... (사례 3)”

“남성들이 독신 여성이라면 성적인 니앙스가 있는 야릇한 도움을 제공하려 하는 것. 신문의 칼럼 같은데서 볼 수 있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되곤 하죠. 혼자서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곤 하는데 참 곤란하더라구요.”(사례 8)

이혼 독신가족 제보자의 경우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통념과 독신생활에 대한 편견이 복합되면서 자신의 이혼 사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어디 가서 내가 나 이혼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 만나서 대화로 풀고 자기 안에 거를 꺼내놓고 하면 되는데 전혀 그거를 안해요.”(사례 10)

“가족 중에서도 누구하나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죠. 전부 다 주위에는 적이고 자기 혼자 싸워야 할 적들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가족과의 그런 문제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사례 1)

제보자들의 면접 결과 흥미로운 점은 미혼독신과 이혼독신이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미혼 독신자들은 독신자의 원가족들이 갖는 독신에 대한 편견, 성희롱이나 성적 농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이혼 독신자는 독신보다는 이혼에 대한 편견과 독신이 가중됨으로써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독신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의 분위기는 독신을 개인이 선택한 가족생활의 한 삶으로 여기기보다는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신자들은 그들의 독신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겪거나, 생활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심리·정서적 문제

독신 가족 제보자들이 호소하는 심리·정서적 문제는 소외감, 우울증, 외로움,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얘기할 상대 부재, 자신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었다. 이혼 및 사별 독신가족은 그들이 독신이 되는 과정에서 미혼 독신가족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신생활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자 있으면서 가정을 가진 무리들 속에 함께 섞이기가 참 힘들다는 거, 같이 모인다 하더라도 따로 가는 거,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 가족중심으로 몰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 현 상태에서 좀 막막하고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한없이 힘이 없어지는 거 같은 초라해지는 것을 느낄 때 그럴 때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감정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힘들죠.”(사례 1)

사례 2의 제보자는 사별 후 독신생활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약물 치료를 시도했다

가 실패하고 자신이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졌을 때 비로소 독신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였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약물치료도 하고 했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약으로 의지를 하는 거라구. 나도 약으로 해봤는데 약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더 빠지더라구. 그 약을 안 먹으면 안되니까는... (중략) 너무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보다 더 이상의 절망은 없다 생각을 하고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이 있거나하고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그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중략)”(사례 2)

노인 독신 제보자인 사례 4와 사례 5의 경우 애기 상대가 없고, 자신의 힘든 상황을 호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노인기 가족의 문제점 중 하나가 노인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인데, 노인 독신생활자의 경우 혼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호소할 수 없고, 터놓고 대화할 수 없어 답답해 하였다.

“괴로운 일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속에다 묻지요. 누구한테 호소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체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사례 4)

“외롭기가 한이 없지요. 초저녁에 잠을 자고 나면 잠을 못 잡니다요. 애로점이 많고. 이렇게 불에다가 태우던지 해 줄라하는가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면 잠이 안 와요.”(사례 5)

전길량·김정옥(2000)의 연구에서 독신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보다 고독감이나 소외감의 정도가 높으며 사망률이나 정신건강의 약화에도 영향을 미쳐 노년기에 배우자 상실 자체만으로도 생활 만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의 독신 노인들의 정서·심리적 문제가 나타나는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 사회적 관계망 축소

독신가족이 접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자신의 원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망 축소의 문제는 단순히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자체로만 보기보다는 사회적 편견, 정

서·심리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제보자들은 독신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서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뿐 아니라, 외로울 때 대화상대를 찾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외면 당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체념하게 되면서 독신자 스스로 주변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만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처지가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이 이해를 할거란 말이지, 나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란 말이지. 제 3자한테 내 허술함 같은 거 보이고 싶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별로 접근을 안해요.”(사례 4)

특히 미혼자들은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는 시기에 독신자들은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피하게 된다. 가족모임에서 늘 화제가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족모임이나 명절에 참석하지 않는 편이에요, 우리 식구만 있어도 때로는 힘든데 명절이면 친척이 다 모이게 되고 자연히 혼자 사는 사람에게 화살이 겨냥이 되가지고 모든 화살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중략) ... 그러다 보면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친인척인데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서로 둔감하게 되고 대화도 없게 되고 왕래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남을 쳐다보듯 그런 시선도 오게 되고 친인척간에 이질감 같은 게 커진다고 할 수 있죠.”(사례 1)

독신자들은 만나는 친구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면 공통된 대화 화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해서 만남이 줄어들는다.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서 잘 안 만나요. 대화의 공통점도 없고 나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고, 그러니까 친구라고 만나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만나게 되요.”(사례 3)

서로 달라진 삶의 문제들이 친구와의 이해와 공

감의 폭을 제한하며 현실적인 교류를 어렵게 함을 알 수 있다(김혜련, 1995)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3. 현재 실시되는 독신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가족복지는 어떠한 가족이든 기본적인 가족생활이 보장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친가족적 가족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독신가족을 위한 서비스 역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 연구는 독신가족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각 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는 가족과 친족 책임주의 가족복지정책으로 사회나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가족 전체 성보다는 노인, 아동,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개별중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족복지 중 독신가족에 관련하여 실시되는 서비스로는 임금방식, 사회보험 방식, 조세 방식 등과 같은 소득관련 제도, 산재보험, 건강보험법 제정, 노인건강 진단 서비스 등과 같은 건강보장관련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독신가족 제보자들은 현재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되는 가족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복지 수혜 대상자인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지서비스 혜택의 홍보 부족

제보자들은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나 가족복지는 특정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조차 알지 못하였다.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이용을 해본 사람은 이용을 하지만 인식이 그런데서 뭘 잘 가르칠까 그런 인식

을 갖고 있지. ... 홍보가 좀 안 되어있지. 못사는 사람들이 가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지. 나도 복지관 몰랐어. 있는지도 몰랐어. 레크레이션 정도밖에 몰랐는데... 복지관 같은데서 무료진료 해 주고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인 거 같던데? 거기서 물리치료도 하고 차도 운행하는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몰라서 못 다녔어. 그런 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더라고... 몰라서 못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사례 2)

“우리나라에서 노후대책이 잘 되어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스럽고 그런 보험을 들면 매일같이 무슨 하자가 있어... 아직까지 우리나라복지가 너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서 여러가지로 그러한 것 하나 하나가 걱정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제도도 없잖아요. 독신자들한테 나라에서 무슨 혜택을 줘요? 그런 거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잘 몰라요.”(사례 3)

이러한 점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가를 보여주었다. 복지서비스 이용 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복지관 정도만 인식할 뿐 그 외 다른 기관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역사회복지관 역시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2)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의 제한

제보자들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수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수혜 대상에서 주택임대, 생활비 보조, 의료혜택 등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사례들이 많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를 배우려고 하면 우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 우선이야 그러니까 수입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받는 거야. 세금만 많지. 우리는 공공근로를 나가고 싶어도 집이 있다고 안 된다는 거지.”(사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재산기준에 따르면 15평 이상의 자가와 20평 이상에 거주하는 자는 수급권자에서 무조건 제외(장인협 회, 2001)시키기 때

문에 사례 2의 경우에 생활보호 대상자(이하 생보 대상자) 결정 시 자가를 보유한 이유로 인해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경우 개설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외된 대상자들의 경우 구직이나 자격증 취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내가 얼마 전에 복지관에 가봤는데 다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 내 나이에 맞는 건 없어. ... (중략) 다 30대들이야. 3,40대 모집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젊은 사람들이...취업이 잘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린다는 거야. 갔다가 어색해서 왔어.”(사례 2)

수혜 대상자의 욕구에 기준해서 서비스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 선정을 결정하는 것은 가족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3) 복지서비스 내용의 빈약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 독신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어서 현재 주어지는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노인독신자들은 의료 부문에 대한 제한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독신가족 제보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언급하였다.

“의료수가는 무료이지만 골다공증에 필요한 약이나 호르몬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먹어야 하는데 매우 비싸요. 그래서 약을 먹지 못하고 음식으로 충당해야 해요.”(사례 6)

“정부 보조는 의료 1종 보호받고 있어요. 1종 의료보호 말고는 일체 없어. 내 참 더러워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매일매일 말야...”(사례 7)

또, 현재의 복지프로그램 내용들이 독신가족을 특별히 배려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그나마 몇 가지 제공되는 프로그램조차도 직장생활을 하는 독신자들을 배려하지 못해 시간적 제약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혼자 사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대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직장생활하면서 그 주부들하고 그런 일을 같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독신여성이나 일하는 여성들만을 위해서 따로 복지관이 클럽을 운영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사례 1)

그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독신자들은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기회나 자조 집단 등이 부족함으로 언급하였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상담하기가 참 힘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 같은 거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사례 1)

“상담해 주는 기관도 없고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것도 거의 솔직히 난 여성의 전화나 이런 여성단체를 안 믿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 들어주는 입장이지 그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서 냉정하게 판단을 못해 주더라고요.”(사례 10)

그 외 프로그램 수혜자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운영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해서 사람들보다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나 같은 사람은 특히 이용하기가 쉽지 않지.”(사례 2)

독신가족 제보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보였다. 특히 미혼 독신가족은 자신들을 위한 상담이 없는 점에 대한 부분, 복지서비스 기관에서의 운영방법의 비합리성 등을 지적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독신가족의 복지 욕구

개인의 삶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생활양식을 선택하는 추세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고, 복지수혜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신생활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독신가족의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노인, 여성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뿐, 가족단위의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독신가족이 원하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여 독신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독신가족 제보자가 희망하는 가족복지에 대한 욕구는 다음과 같았다.

1) 경제적 자립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제보자들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특히 젊은 층의 미혼과 이혼 독신가족 제보자들은 독신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글쎄 그런 건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사례 1)

한편,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마련이나 창업 시에 금융적인 지원을 독신자에게 차별 없이 해 주기를 바램을 보였다.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대출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혼자 사는 이에게는 더 힘든 부분이 많은데 개인의 신용도를 보고 좀 융통성 있게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사례 1)

노인 독신가족은 현재 생보 대상자로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지 수혜 정도의 향상을 요구하였고, 노인 제보자들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금전적인 도움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필요한 것... 됐어요. 다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적

인 거겠지요.”(사례 4)

“저는 뭐냐하면 아팠다고 하니까 아플 때는 일을 못 나가지요. 밥도 못 먹고 어지럽고 밖에 나가면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필요하나 돈이 필요 하지요...(중략)”(사례 5)

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제보자들 중 자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고 월세나 전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유지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이를 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

“집세 부담이 좀 덜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여러 가족이 함께 사는 방향으로 집도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사례 6)

“... 조금 해결 받고 싶은 건 집 전세문제가 빨리 해결했으면 해요.”(사례 9)

현재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거지원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독신가족의 경우 수혜자 자격요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건강 및 노후 대책 요구

건강에 대한 복지 욕구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젊은 독신제보자들은 대체로 현재의 건강보다 미래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발생 시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 노후 복지에 대한 기대로 노인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노인이 되었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나이 들어서 아프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돈을 많이 모아 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생겼으면 하구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시설들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사례 11)

“무료 주택이나 양로원 같은 거. 나라에서 못하면 종교 단체 같은데서 많이 무료로 해서, 외국에선 젊었을 때 다 자원봉사하고 그리고 자기도 나이 들

면 거기 들어가잖아.”(사례 2)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 거주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사례 8)”

이에 반해서 노인독신 제보자들은 좀 더 현실적인 복지 바램을 제시하였다. 제보자들이 한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국가로부터 의료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그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약값이 많이 드는데 좋은 약은 사먹지를 못해요, 약값이 비싼데다가 의료보험이 안 되는 약들이 많아서... 내가 먹는 약이라도 좀 싸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사례 5)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전혀 못하니까. ... 골다공증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비싸요. 그런 약을 무료로 먹거나 값싸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사례 6)

노인독신 제보자들은 자신이 위기상황에 처해지거나, 거동이 불편해 지게 되면 재가 서비스의 한 방법으로 가정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하였다.

“내가 문제가 생길 때면 도우미가 필요하지요. 그이가 딸 노릇을 해요. 내가 아파서 못 먹을 때는 전화 번호를 적어놔서 전화번호를 눌러놓지요. 저 때도 119로 3번씩 실고 갔다 왔어요...(중략)”(사례 5)

독신가족을 위한 건강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의료서비스 질의 문제점과 개선 욕구가 높기 때문에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하루빨리 보완하도록 하고 미혼 독신가족이 희망하는 노후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자조모임에 대한 필요

독신가족의 문제점에서 지적된 것처럼 제보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정상 가족에서 늘 배제되고, 제보자 스스로도 어울리지 않으려는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같이 만날 수 있는 모임이 많았으면 좋겠고, 독신자 모임 또 독신자 모임뿐 아니라 동호회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은 곳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도 되다면 그런 모임에 가입해서 아무래도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모임들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사례 1)

“...보통 가족 위주로 되는 것이 많잖아요?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특별한 날도 그렇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임도 괜찮고... 그런 것 정도...?”(사례 9)

사례 1이나 사례 9에서와 같이 자조모임에 대한 요구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미혼독신의 경우 더 강하였는데 이는 이혼이나 사별 독신자들은 결혼 경험이 있어 결혼생활을 하는 다른 가족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미혼독신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 종교 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독신자들을 위한 모임을 주선하여 서로 정신적인 위로가 되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자신들의 생활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 홀로된 사람들끼리 모이면 참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성당에서 그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우. 그런 모임이 있어서 주위에서 같이 나누면은 통하는 데가 있으니까. 동단위로 잡아서 모임을 만들어주면 좋겠더라구. 같이 어려울 때 정보도 나누고 좋겠더라구.”(사례 2)

V. 결론 및 논의

최근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형태와 가족 규모가 변화하면서 정형화된 가족에서 벗어나는 가족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독신가족도 새로운 가족의 한 형태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 가족은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고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외부의 개입이나 도움의 필요를 최소화 하였으나, 현대 가족은 외적·내적으로 빠른 변화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가족원들은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 가족이 갖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가족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족복지는 전통적인 핵가족과 확대가족을 전제로 하고있어 정형성을 벗어난 가족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제한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족복지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가족의 전체성에 개입하고,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가족정책(김성천·윤혜미, 2000)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독신가족이 독신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그들의 복지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독신가족 제보자의 결혼상태는 미혼, 이혼, 사별의 3유형이었고, 독신이 된 경로는 제보자별로 상이하였으나 미혼 독신가족이 비교적 독신생활에 대해서 준비된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 이혼 및 사별 독신가족은 독신생활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독신가족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독신가족 제보자가 경험하는 독신생활의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정서·심리적 문제,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혼상태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미혼 독신가족은 사회적 편견과 관계망의 축소로 인해서 독신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미혼 독신제보자들은 독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자신의 원가족이나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점은 심리·정서적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이혼 및 사별 독신가족은 구직의 어려움, 생활비 부족, 병원비 부족과 같은 경제적 문제와 건강악화 및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불안감 등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이나 사별 독신가족은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거나 질병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독신가족 제보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각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 독신가족 당사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파

약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수혜 대상자 선정 문제, 서비스 자체가 형식적이고 제한적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복지적 욕구로 대두되었다. 독신가족이 원하는 복지적 요구로는 경제적 문제 해결, 건강 및 노후 대책, 자조모임 결성 등을 제시하였다.

독신가족이 제기한 문제와 복지적 욕구를 중심으로 독신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 지원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신가족은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독신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이미 실행되는 서비스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보 수혜자 선정 시에 독신가족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하는 방안, 생보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지원금의 상향 조정과 다양한 소득지원 대책의 마련 등 현재의 경제적 부문에 관련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며, 구직,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건강지원에 대한 욕구는 연령과 결혼상태 등 독신가족의 서로 다른 상황에 적절하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젊은 독신가족들은 미래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노인 독신가족은 현재 자신의 독신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정봉사원 제도, 노인건강 서비스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사회적 편견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연계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지원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정서적 지원은 독신가족이 원하는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적 지원대책이 거의 전무한 부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할 것이다.

독신가족은 대화상대의 부재,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터의 소외로 인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심리·정서적인 부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문제와 같이 다른 영역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있다. 따라서 정서적인 안정되고,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

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책의 한 방안으로서 독신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정생활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독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 독신생활에 대해서 일반인의 인식을 긍정적이고 수요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해야할 것이다.

위와 같이 독신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확대함으로써 독신가족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가족 내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독신가족의 독신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가족복지 욕구를 사례조사로 밝혀냈으므로 그들의 생활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신가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양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인(1998).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와 적응.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 김선영(1991). 미망인의 가족스트레스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성천, 윤혜미(2000).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보건복지부.
- 김용재(1995). 독신 성인 유형에 따른 교육적 필요에 대한 조사 연구. 침례신학대학 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옥, 박경규, 박순희, 안영희, 구향숙, 한동희, 전형미, 류도희, 박영숙, 이은경, 이현애, 정복희, 김성희 편저(1998). 결혼과 가족. 학지사.
- 노영주(2001). 이혼 여성의 모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43-64.
- 문현숙, 김득성(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99-120.
- 박경민(1994).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년기 우울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성지미, 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130.
- 유영주, 서동인, 홍숙자, 전영자, 이정연, 오윤자, 이인수(2000). *현대 결혼과 가족*. 신광 출판사.
- 이기숙, 공미혜, 김득성, 김은경, 손태홍, 오경희, 전영주 공저(2001). *결혼의 기술*. 학지사.
- 장인협, 이해경, 오정수(2001). *사회복지학-개정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길량, 김정옥(2000). 배우자 사별 노인의 자기 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155-168.
-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재관, 변용찬, 문현상(1998).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1994). *상배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 사회적 접근*.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정현숙, 유계숙(1998). *결혼학개론*. 상명대학교 출판부.
-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김진희, 박정윤, 윤정향 공저(2001).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최해경(1996). 도시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노년학*, 16(2), 39-52.
- 최희정(1997).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통계청(200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_____ (1999). *통계로 본 여성의 삶*. 통계청
- Benokraitis, N. V. (1993). *Marriage and family - change, choices, and constraints*. Prentice Hall, Inc.
- Coombs, R. H. (1991). Marital status and personal well-being: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40, 97-102.
- Krause, N. (1991). Stressfu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on among elderly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46(2), 84-92.